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인간과 죄, 세션 18, 원죄, 칼빈주의, 펠라기우스주의의 강점과 약점,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원죄, 칼빈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칼빈주의의 강점과 약점입니다.

우리는 강의를 계속하고, 저는 복음주의자, 신학자, 폐지론자 찰스 피니가 사용한 예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의 신학을 여러 면에서 공유하지 않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죄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제가 그것을 생각하게 한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로마 가톨릭교입니다. 피니는 뉴욕 주 서부의 소위 소진된 지구,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에서 목회했으며, 그는 나이아가라 강에서 폭포로 향하는 사람의 이 예를 사용했습니다. 폭포를 넘어간다면 그는 망할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을 도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피니는 네 가지 입장을 구분했습니다. 한편 펠라기우스주의는 단일 주의적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주의는 단독주의적 입장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의 단독주의는 물 속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이 실제로 곤경에 처한 것이 아니라, 그냥 헤엄쳐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구하고, 스스로를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만의 단독주의입니다. 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분류의 원장의 반대편에는 또 다른 단독주의, 아우구스티누스주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의식이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도울 방법이 없지만, 신이 주도권을 잡고, 뛰어들어, 그를 붙잡고, 그를 끌어내고, 그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그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에게, 뭐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죠? 어쨌든, 그는 그 남자를 소생시킵니다. 단독주의, 신적 단독주의, 인간 단독주의. 인간 단독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신성한 단독주의, 아우구스티누스주의, 그리고 그 손자인 칼빈주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 - 칼빈주의 입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립니다.

이것이 펠라기우스의 입장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로마 가톨릭이나 아르메니아인 친구, 심지어 펠라기우스파 친구를 부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피니 자신도 놀랍게도 자신의 견해를 반펠라기우스주의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글로 표현한 것을 보고 싶으시다면, 마이클 윌리엄스와 저는 Why I Am Not an Arminian이라는 책을 공동 집필했습니다. 오, 공평하게 말해서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Jerry Walls와 동료 Joseph Dongell 이 Asbury 신학교 시절에 쓴 *Why I Am Not a Calvinist* 의 동반 책 중 하나입니다.

제리 윌스와 조셉 동겔. 윌스는 철학자이고, 동겔은 신약학자입니다. 윌리엄스와 저는 체계 신학자였습니다.

역사적 전문성을 가진 윌리엄스. 제가 강조한 것은 더 해석적이었습니다. 제가 칼빈주의자가 아닌 이유는 그들이 먼저 InterVarsity에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InterVarsity가 Covenant Seminary에 와서 우리에게 동반 책, 즉 응답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Why I Am a Calvinist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Why I'm Not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제목은 Why I'm Not an Arminian이었습니다.

제 학생들은 당신이 왜 내가 칼빈주의자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예는 그 책에서 나온 것이고, 실제로는 궁극적으로 피니 자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는 그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신은 땅에 계시고, 신은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가 신에게 부르짖어 "야, 나를 구해줘"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신의 뜻이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반-펠라기우스주의이며, 단독 주의적 , 자유롭고, 인간의 자유의지, 절대적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너지즘이며, 신과 인간이 함께 일합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이 부르짖고, 신이 그를 구해낸다. 반-아우구스티누스주의도 마찬가지로 시너지즘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펠라기우스주의의 인간적 시너지즘과 달리, 반-아우구스티누스주의의 신적 시너지즘이다.

이 경우, 신은 이미 해변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주의는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은혜가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윌리엄스가 제 책, *왜 내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아닌가* 에서 제시한

것으로, 아르미니우스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공평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장 좋은 신학은 펠라기우스주의가 아니라 반-아우구스티누스주의이고, 반-펠라기우스주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 아르미니우스파 친구 중 일부는 그들의 동료 중 일부가 실제로 반-펠라기우스파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최고의 아르미니우스파가 아니고, 그 책에서 우리의 목표는 최악의 상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면 동료 기독교인 을 반대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최고의 상대를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로마 가톨릭교는 펠라기우스주의와 반-펠라기우스주의를 비난했고, 오렌지 공의회와 그 이후에는 반-아우구스티누스주의라고 불리는 입장에 도달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 당시 회복한 본격적인 아우구스티누스주의는 아니지만, 루터의 후손들은 칼빈주의자들만큼 항상 정확하게 신중하게 고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죄에 대한 견해, 칼빈주의. 이 견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타락한 본성과 죄를 모두 부여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글썄요, 펠라기우스주의는, 하나님은 둘 다 귀속시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아담입니다. 우리는 원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부패했지만 유죄는 아니다. 반면 칼빈주의는 죄책감과 부패가 모두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은행 계좌에 쌓인다고 말한다. 따라서 칼빈주의는 부패와 죄책감의 귀속을 부인하는 펠라기우스주의와 다르다.

그것은 타락한 본성의 귀속을 고수하지만 인간에게 죄책감과 책임의 귀속을 거부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와 다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지점까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성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두 가지 하위 입장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입장은 대표적 관점과 자연적 우두머리 관점입니다. 대표적 관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인류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첫 번째 사람, 우리의 연방적 수장으로서의 시험대에 있었습니다. 대표적 관점은 연방적 수장직이라고도 합니다.

자연적 우두머리 관점은 현실주의라고도 불린다. 연방 우두머리, 자연적 우두머리. 대표적 관점, 현실주의.

그 조건들은 우리가 진행하면서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첫 번째 사람 아담, 우리의 연방 수장의 인격으로 보호 관찰을 받았고, 그래서 이 관점을 연방 수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죄책과 타락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받아들였습니다. 에릭슨은 기독교 신학에서 밀려 에릭슨이 연방적 우두머리 직분이 일반적으로 영혼의 기원에 대한 창조론적 관점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큰 존경심과, 확실히 그의 글을 통해 제 스승이 된 그에게, 저는 그가 영혼의 기원에 대한 특정 관점과 원죄에 대한 두 칼빈주의 입장 중 하나에 대한 특정 관점을 채택한 것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을 보지 못합니다. 루이스 버코프, 존 머레이, S. 루이스 존슨은 이 관점을 지지합니다.

그들은 대표적 관점인 연방적 우두머리가 로마서 5장의 아담-그리스도 평행선과 가장 잘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은 더 나아가 즉각적 귀속과 즉각적 귀속으로 나뉩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종류의 것을 좋아하는 이유를 언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은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를 계속 고용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어리석음은 제쳐두고, 나는 대표적 관점에 동의합니다. 자연스러운 우두머리 관점. 이 관점은 때때로 현실주의라고도 불리며,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우두머리.

저는 에릭슨이 이 관점을 옹호하는 말을 인용해서 들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영혼의 기원에 대한 전통주의적 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영혼을 물려받는데, 이는 우리가 육체적 본성을 물려받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상에게서 씨앗이나 배아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따라서 현실주의는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아담과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씨앗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고립된 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행동이었습니다. 인류 전체가 아담 안에 씨앗 형태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거기에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인류 전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에릭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과 죄책감을 받는 것에는 불공평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실제로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의 정당한 결과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견해라고 그는 말한다, 에릭슨은 말한다. 에릭슨, 기독교 신학, 2판, 635, 636. 후속판이 있다면, 나는 그것들을 추적할 수도 없다. 색인을 사용하여 올바른 장소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원죄에 대한 칼빈주의적 견해는 두 가지로 나뉘고, 첫 번째 견해는 두 가지로 더 세분화됩니다. 연방적 우두머리와 현실적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대표주의가 있고, 현실주의가 있습니다.

둘 다 아담을 주장하고, 둘 다 귀속을 주장하고, 아담이 우리의 머리라고 주장하지만, 그는 우리의 연방적 머리, 우리의 대표자입니까? 그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머리입니까? 그런데, 그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머리라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아담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원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에릭슨이 불공평하거나 부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을 주목하세요.

대표주의, 연방적 주장식에 대한 큰 비판은 아담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정죄받을 수 있습니까? 원죄에 대한 견해에 대한 평가. 같은 견해지만, 칼빈주의에 도달하면 다른 하위 집합으로 작업할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 강점. 여기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나머지에겐 나쁜 본보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의적 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이나 은혜에 대한 필요성조차 없습니다. 약점.

바울은 로마서 5:12-19에서 다섯 번이나 아담의 한 죄가 모든 죽음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의 나쁜 본보기 때문이라고 믿으라고 기대하시나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15절에서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범죄나 범법으로 죽었습니다.

16절, 심판은 한 가지 죄에 이어지고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법으로 인해 사망이 통치했습니다. 18절, 한 범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되었습니다.

그리고 19,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나쁜 본보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죄에 대한 견해가 전혀 아닙니다. S. 루이스 존슨은 제가 앞서 언급한 그 기사에서 로마서 5:12-19를 해석과 신학의 시험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메릴 테니와 룽에네커, 테니가 편집한 *New Studies in New Testament Theology*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S. 루이스 존슨은 14절의 의미가 이 견해에 반대된다고 효과적으로 주장합니다.

거기에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 중 일부와 죄에 대한 벌로 죽음을 겪은 사람들 중 일부는 아담의 죄와 비슷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의식적인 범법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주의에서는 다른 방식, 다른 죄짓는 방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본보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담에서 모세까지, 심지어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이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현실주의의 죽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그의 허리에 있다면, 그가 어떻게 우리와 다르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펠라기우스주의를 죽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저지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펠라기우스가 맞다면 우리는 그의 나쁜 본보기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존슨이 옳습니다. 13과 14가 자세히 무슨 뜻이든, 그들은 그가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죄 때문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이나, 우리는 바울이 그 구절에서 정확히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담이 나쁜 본보기였지만, 펠라기우스주의는 원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실패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강점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의 타락이 Janeluska 확언에서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고 가정할 때 옳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 관점은 또한 그 타락의 결과가 죄인들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긍정적인 응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할 때 옳습니다.

불행히도, 최고의 아르미니우스파가 전개하듯, 그것은 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것은 가정적인 조건인데,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 무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 그들은 기술적으로는 무능하게 태어났지만, 가정적으로는, 그들은 즉시 보편적인 예방적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주어지면, 그들은 즉시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은혜를 받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약점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주장하는 바에 있어서 옳습니다. 그러나 주장하는 바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Janeluska의 확언과 이에 대한 Mickey의 해설을 다시 읽어보니,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 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이 효과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키는 아담과 이브가 인류의 원형이었고, 그들의 행동은 그 이후로 각 사람에게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Zondervan 책의 82페이지.

제 질문은, 첫 남자와 여자의 죄가 어떻게 인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이 진술에 펠라기우스주의, 칼빈주의 입장, 또는 다른 견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성경의 범위 내에 정확히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응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칼빈주의자들이 신학에서 말씀을 넘어선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5장의 성경적 자료가 펠라기우스주의의 원죄 관점을 배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 입장에서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원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또한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무효화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선행적 은혜 개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 예외는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 입장은 우리가 신앙의 모든 기사,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하여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입증한 다른 원리에서 특정 원리를 추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신학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또한 주해적으로 근거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신학과 신학 체계가 건전하려면 논리적 일관성과 함께 주해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국 제 체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다른 것보다 성경에서 더 명확하게 가르쳐집니다. 그리고 저는 철학이나 인간

이성 또는 무엇이든 성경이 은혜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도 거대한 상부 구조를 짓는 데 주저합니다.

네, 그것은 은혜에 대해 가르칩니다. 네, 그것은 은혜가 구원한다고 가르칩니다. 네, 그것은 은혜가 구원에 앞선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예방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믿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웨슬리안 신학의 가정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선행 은혜는 효과적이며 따라서 특별합니다. 칼빈주의, 자연적 우두머리, 강점, 자연적 우두머리, 또는 현실주의는 모든 사람의 죽음이 아담의 죄에 근거한다고 올바르게 주장합니다. 또한 아담이 인류의 자연스러운 우두머리라고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저는 아담의 자연스러운 우두머리 직분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원죄를 설명하는 방법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약점이 있지만, 현실주의는 대표적 관점보다 외계인의 죄책 문제를 더 잘 다룬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 관점이나 연방 수장의 큰 문제는 바로 외계인의 죄책감입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 죄책감이 인류의 정죄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그건 외계인의 죄책감이에요. 사실,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저는 제 결론을 미리 판단하고 싶어요.

하지만 로마서 5장 구절에서, 당신은 외계인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외계인의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계인의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인 것처럼, 루터가 말했듯이, 그것은 우리 외부에 있는 외계인의 의로움이며,

우리가 생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은행 계좌에 계산되고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작동하는 방식과 평행하게, 외계인의 죄가 귀속되고, 계산되고, 우리의 영적 은행 계좌에 계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현실주의는 대표적 견해보다 외계인의 죄 문제를 더 잘 처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에 부응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존슨은 그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저는 S. Lewis Johnson의 아름다운 글에 계속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책, *New Studies in Biblical Theology*에 있는 아름다운 에세이. 제목이 맞지 않아요. 제가 바로잡을게요.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인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더라도요. 인류는 그의 허리, 그의 씨 안에서, 말하자면요. 그러니 그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머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머리입니다. 하지만 원죄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현실주의는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연스러운 우두머리 직분이 인류에게 그의 죄가 귀속된 것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외계인의 죄책감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처벌이 정당화되려면, 죄의 행위는 의식적인 자기 결정과 개인적 범죄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주의에 따르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후손은 개인이자 인격체로서 존재하지도 않았습다.

그의 죄의 행위는 그들의 인격성보다 앞선다. 이것이 어떻게 정의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되기 전에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는 씨앗이 되는 것이

정말 정의로운 일인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죄, 우리의 타락을 확립한다.

존슨은 인용문에서 참을 수 없는 함의를 지적하는데, 인용문에서 현실주의에서 생겨나 이론에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그의 에세이 310 페이지. 왜 아담의 후손들은 그의 첫 번째 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그의 나중의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왜 아담의 죄는 인류에 대해 계산되고 이브의 죄는 계산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표자였고, 그의 첫 번째 죄는 우리에게 계산된 것입니다. 이브는 우리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그의 다른 죄는 귀속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원죄, 정당하게 그렇게 불립니다. 현실주의는 로마서 5장, 원죄에 대한 고전 텍스트가 결코 말하지 않는 것을 주장합니다. 즉, 죄와 죄책감은 모든 사람의 행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반복적으로 한 사람의 죄를 우리의 죄와 죄책감과 연관시킵니다. 인류의 죄와 죄책감을 모든 사람의 행위와 연관시키지는 않습니다. 존슨은 "현실주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침묵은 거의 귀가 먹을 정도입니다"라고 썼습니다(310쪽).

네, 그는 약간 과장했지만, 괜찮습니다. 현실주의자는 대표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침묵으로부터의 논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대할 것입니다.

연방 수장 옹호자들은 현실주의 교리 구성의 주요 빔이 단순히 구절에서 빠졌다고 말하며 반박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누락은 중요합니다. 구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에 어떻게 자신의 견해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까? 표현은 현실주의가 결론을 가정하고 질문을 회피한다고 비난합니다.

즉, 이 구절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인류의 죄와 죄책감이 모든 사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그것이 한 사람, 아담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로마서 5장 14절의 마지막 구절은 현실주의와 모순되는 듯합니다.

이 조항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죽음이 균림했다고 단언합니다. 현실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아담 안에서 인종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한 것처럼 죄를 지었다고 주장합니다. 모두가 확실하고 긍정적인 명령을 어겼습니다.

다른 방식, 다른 죄짓는 방식에 대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가 금지를 말할 때 우리가 그의 허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로마인 여러분, 그 조항은 그가 한 것처럼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위에도 죽음이 다스렸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본래의 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의 머리였다면요.

존슨은 로마서 5장에서 아담-그리스도의 평행선에 대한 현실주의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인용문에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의로움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처럼, 그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죄로 정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비유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바울의 요점에 있어서 두 원리와 그 사람들 사이의 연합의 본질이 평행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듯합니다. 아담과 그의 백성 사이의 연합의 본질,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사이의 연합의 본질, 5:14에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유형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를 설정한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8과 19가 명시적으로 말하고, 심지어 반복하고, 19가 18을 반복하고, 차트가 증명한 것이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모든 세부 사항은 같지 않으며, 로마서 5장의 15, 16, 17절이 보여주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두 아담과 그 백성 사이의 결합의 본질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것은 표상적 연합입니다. 중간적 귀속 - 간략한 요약.

칼빈주의의 중재적 귀속과 직접적 귀속의 견해는 아담과 그의 후손 사이의 대표적 결합과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Joshua

Placaeus , placaeus, Joshua Placaeus 는 프랑스 살 모레 신학 대학의 교수로 중재적 귀속의 견해를 창시한 사람이다. 이 학파는 무제한 속죄를 포함하여 정통 칼빈주의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칼빈주의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견해로 유명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전에 모든 정통 개혁 학자들은 아담의 죄가 인류의 정죄의 근거이며 인간 본성의 타락은 아담의 죄의 결과라고 가르쳤습니다. 죄책감은 인류에게 전가됩니다. 우리는 유죄이며, 그 죄책감으로 인해 태어날 때 죄를 짓고 정죄받습니다.

부패는 논리적으로 죄책감에 따른다. 아담의 죄는 부패의 근거였고, 그 부패는 아담의 죄의 결과였다. 플라카에우스는 순서를 뒤집었다.

그는 타락한 인간 본성을 정죄의 근거로 삼았고 아담의 죄의 죄책감을 타락한 본성에의 참여에 의존하게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외래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견해의 동기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귀속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표준적인 견해는 첫째,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귀속되어 인류에 대한 정죄를 초래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플라카에우스의 견해 에 따르면 , 칼빈주의를 더 수용 가능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타락한 본성은 각 사람의 정죄의 근거이다. 각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는 아담의 죄에 대해 유죄이다.

약점. 즉각적인 귀속은 로마서 5:12에서 모든 죄를 지은 것을 부패하거나 타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B.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의 후손이 아담의 한 죄로 인해 죽는다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죽음, 정죄, 죄인의 지위는 모두 한

사람의 한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중재자도 없습니다.” 존슨, 311쪽. 제가 존슨을 의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의 해석과 신학에 대한 수행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학이 해석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매우 나쁜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자유주의적 체계적 신학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톨리히는 전통적인 신학에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마치 피카소의 예술, 큐비즘 등이 그가 태어난 전통의 일반적인 표상 예술과 비교했을 때 이상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는 그런 예술에 매우 능숙했습니다. 기괴한 일입니다. 톨리히는 성경을 거의 인용하지도 않고, 인용할 때는, 오, 철학 논문, 그의 체계적 신학입니다.

그래서 S. 루이스 존슨은 말합니다. S. 루이스 존슨은 델러스 신학대학에서 영원히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은퇴를 했고, 말하자면 트리니티 신학교에 가서 신학, 즉 주해 신학을 가르쳤는데, 그는 그 분야에 매우 능숙했습니다. 그의 주해와 신학 활동은 많은 체계 신학의 원죄에 대한 견해에 대한 해독제로 여겨지는데, 로마서 5장을 언급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가 그 중 어느 것도 그것에 대한 주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 해석. 워필드의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나갔습니다. 대학에서 체계신학 교수가 되려면, 존 파인버그가 트리니티에서 한 것처럼 철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보통은 나머지 모든 것을 전공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신학을 합니다. 당신은 주해 신학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계 신학자는 때때로 철학적, 체계 신학자이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체계 신학자입니다.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주해적 체계 신학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DA 카슨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30년 전, 그는 에세이를 썼는데, 그 중 하나는 성경의 통일성과 체계적 신학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책은 성경과 진리라는 책인데, Ibri 책 중 하나였습니다. 성경 무오성 위원회, Ibri가 아니라 성경 무오성 위원회, 제가 조직을 혼동해서 죄송합니다. 국제 성경 무오성 위원회입니다. 그는 성경의 통일성이 전통적 체계 신학의 전제이며, 특히 구약과 지금은 신약에 대한 성경 비평의 엄청난 맹공격으로 인해 체계적 신학이 대학에서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진실이 있고, S. Louis Johnson의 에세이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값 귀속은 로마서 5:13, 14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있는데,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죽음의 원인이 됩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죽음의 통치의 원인은 첫 번째 사람의 죄입니다. 존슨은 중재적 귀속 이론을 올바르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중재적이란 무엇이고, 직접적이란 무엇입니까? 답은 아담의 죄책의 귀속입니다.

직접 귀속에서는 아담의 죄가 즉시 귀속되고, 부패가 간접적으로 귀속됩니다. 그것은 그것에서 나옵니다. 간접적 귀속에서는 아담의 부패가 즉시 귀속되고, 죄가 간접적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귀속을 똑바로 유지하기 위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측면은, 아, 아담의 죄책입니다. 존슨은 평행선과 함께하는 간접적 귀속 이론이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평행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올바르게 주장합니다. 마치 우리가 본래적인 의로움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외래적 의로움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적인 타락으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외래적 타락, 외래적 죄책으로 정죄받습니다.

중간적 귀속의 약점에 대한 다섯 번째 주장. 중간적 귀속은 칼빈주의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고안되었는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하시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외인적 죄책의 문제입니다.

현실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이론 역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존슨은 적절하게 주장합니다. 만약 내재적 타락이 처벌이라면, 그리고 달리 주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 왜 신은 타락, 타락, 오염을 귀속시키는 것일까요?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렇다면 죄책감이 선행했을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만약 타고난 타락이 처벌이라면, 그리고 그렇다면 죄책감이 선행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책감은 아담의 첫 번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중재적 귀속은 억압합니다. 저는 여기서 누구의 동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동기를 중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숨겨진, 숨겨진 처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호 안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유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락했고,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는 유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죄책감 없이 본래적인 부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가요? 사실, 헬베틱 합의에서 말했듯이, 공식 합의 헬베틱카 1675와 그 주요 추진자인 토레톤은 플라카에우스의 교리가 실제로 아담의 죄의 귀속을 완전히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노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실제로 부패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귀속과 그 강점과 반대 사항을 다루고 원죄 교리의 체계적이고 목회적인 의미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원죄, 칼빈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칼빈주의의 강점과 약점입니다.